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에세이

202311173 김유진

1. 서론

-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옳은 준법인지에 대한 논제를 다룰 것이다.
-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제권과 유사한 법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규정해 놓고, 쉽게 조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223-6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만 5천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 3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였다.¹ 이에 제5조는 “①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있다. 또한 제5조의2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는 조항이 내포되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응급의료에 대한 처치 행위에 의무가 없는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현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나서 오히려 소송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라고 불린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사례도 무한하지만 반대로 처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해서 갈비뼈 부러짐이나 성추행, 사망과 같은 결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사례도 무한하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며 비난을 받을지 언정 피하는 경우가 무성하다.
- 5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을 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법률에 대한 면책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처벌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논의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2. 본론

- 1 자비의 의무는 요구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Jerffrie Murphy’라는 철학자의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예시로 든다.¹
- 2 “나는 수영장에 있는 비치 의자에 누워 휴식하고 있다. 낮 모르는 아이 하나가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를 보는 순간 내가 마시던 음료 캔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줘야 할지 생각해본다. 그는 너무도 가벼워서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도 없이 단지 한 쪽 팔만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다. 머피는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아이는 나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머피는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 구조 의무를 지는 사람은 3가지라고 말한다. “위험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 구조를 임무로 하는 소방관, 안전요원 등의 공익 요원, 아이와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 따라서 3가지의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처벌이나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낮 모르는 사람과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경범죄 처벌법을 고려해야 한다.¹ 이의 제2장 경범죄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6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고나 피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관리하는 곳의 안전 및 질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장소의 관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만약 사고 주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처벌 판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 4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국민과 개인에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유권이 존재하고,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¹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나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판단할 능력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도덕적 문제라고 본다. 타인을 돕는 것 또한 개인의 양심 및 선택에 속하기에 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타인을 도운 진실된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3. 반론/재 반론

3-1. 반론

- 1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이기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필요하다.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곤경 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행위는 인간 혐오의 감정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연대성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진다.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을 사람들을 낫을 모른다고 한들 도움을 줄 인간의 도덕적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 첫째, 개인주의 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도리를 저버릴 수 있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는 것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소한의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타인의 불행을 모면하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무관심을 보이는 행동이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및 개인주의 태도는 사회의 불안을 지향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사소한 관심이 목숨 자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사회도 깨닫게 되어야 한다.

3-2. 재 반론

- 1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주의 사고를 통해서 판단 후 행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적 권리를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2 반론 중 둘째 반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체해서 누군가 불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낚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침은 사회 불안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논란되는 사회 속에서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용되었을 경우, 악용될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3 또한 공동체주의 관점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구할 때 의료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도왔을 경우에 공동체의 연대성이 항상 보장하는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소송이나 처벌을 받을 피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 1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를 취했을 경우에 처벌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응급구조를 취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따라서 법적으로 대안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응급구조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람일 경우 응급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처벌받을 위험성을 줄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만이 아닌,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논제거리를 토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미래의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길이다.
- 3 전문 의료지식이 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도덕성과 법으로 인해 애매한 결정을 내릴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하므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대신에 응급의료법에 대한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 지식이 적은 일반 시민들이 응급조치를 행했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응급환자 및 응급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홍보와 교육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면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자유주의를 보장하며 동시에 공동체주의를 이끄는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5. 참고문헌

1(서론)-2. ¹. 한림학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의 사회탐구영역 중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never 지식백과,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27분 접속,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naver.com\)](#)

1(서론)-3. ¹.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2년 12월 27일 수정,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30분 접속, [응급의료에관한법률 \(law.go.kr\)](#)

2(본론)-1. ¹. 이승환(고려대 명예교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넘어 호모 레시프로칸스(homo reciprocans)를 향해”, 열린열단(에세이), 발행일: 2021년 11월 19일,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37분 접속,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넘어 : 네이버 열린열단 \(naver.com\)](#)

2(본론)-3. ¹.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2017년 10월 24 일부개정,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41분 접속, [경범죄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2(본론)-4. ¹. doopedia 두산백과, “자유권”, never 지식백과, 2023년 오전 2시 48분 접속, [자유권 \(naver.com\)](#)

3-1. 반론: success 1,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사례”, 2022년, 12월 2일, 2023년 오전 2시 52분 접속,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사례 \(success1000.com\)](#)

3-2. 재 반론: wowm****, “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댓글 중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있었다면… 경찰 고심”, 네이버 지식in, 2022년 11월 19일,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56분 접속,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 지식iN \(naver.com\)](#)